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문학 연구

— <출새곡(出塞曲)>과 <속관동곡(續關東曲)>을 중심으로

강 경 호*

차 례

1. 머리말
2. 이재 가사의 재조명
 - 1) 이재 가사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2) 이재의 가사 장르 인식 재조명
3. 이재 가사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
 - 1) 관북(關北)의 풍토성에 기인한 인정
(人情)의 형상화 — <출새곡>
 - 2) 퇴사(退仕) 후 탈속(脫俗)의 의식
지향 — <속관동곡>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문학사에서 17세기는 조선전기와 후기의 흐름을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시기이다. 다시 말해 여러 문학 장르들의 내적 변화들을 조금씩 감지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은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문학사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조선후기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문학의 다종다양한 변화상들은 17세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가사 문학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17세기의 가사 문학은 정극인, 송순, 정철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 가사 문학과는 변화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작품 소재 및 대상이 다양화되거나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작품 내·외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전기의 가사 작품들이 이룩했던 수준에서 좀더 나아가기 보다는 그 수준을 추수(追隨)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러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시기 가사 문학에 대해 선뜻 높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가사 장르의 주 담당층은 사대부들이며, 이 사대부 가사는 이후 18·19세기에도 시정·대중적 성격의 가사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대부 가사는 “전대에 추구되었던 이념지향가사나 풍류가사의 전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미적인 탄력성을 잃어가고”¹⁾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17세기의 사대부 가사는 15·16세기 사대부의 미적 취향을 드러내는 가사 작품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시에 18·19세기 가사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미세한 조짐 또한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의 가사 문학은 그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상의 전단계적 양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17세기 가사 문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 일환으로 16세기 말~17세기 초, 그 변화의 출발점에서 있었던 이제(頤齋) 조우인(曹友仁, 1561~1628)의 가사 문학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조우인은 <출새곡(出塞曲)>, <속관동곡(續關東曲)>, <자도사(自悼詞)>, <매호별곡(梅湖別曲)> 등 당대 가사 작가로서는 적지 않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기봉(岐峰)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이나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 등 그 이전 시기의 가사 작품에서

1) 성무경, 『19세기 국문시가의 구도와 해석의 지평』,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462쪽.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시각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 또한 이를 통해 전기 가사와의 변별되는 시기적 징후와 후기 가사로 이어지는 전단계적 측면 등에 유의하면서 이재 가사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재 가사의 재조명

1) 이재 가사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이재 조우인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가사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사 작품 이외에도 많은 한시 작품과 사(詞), 산문 등을 남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²⁾ 그의 가사 작품을 다루면서 그의 생애도 약간의 조명을 받았을 뿐이다. 이재의 생애는 「행장(行狀)」이 전하지 않아 그 전모를 살피기는 어려우나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묘지명(墓誌銘)」³⁾ 및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⁴⁾

2) 조우인의 '사(詞)' 작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창록(「頤齋 曹友仁의 '詞'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3) 이식,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并序」, 『택당집』 별집 권6.

4) 조우인은 자(字)가 여익(汝益), 호는 이재(頤齋), 현남(峴男), 매호(梅湖)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명종 16년(1561)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비교적 늦은 나이인 28세(선조21년, 1588) 때 진사에 합격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군(倡義軍)에 문서유사(文書有司)로 참여하였다. 45세(선조38년, 1605)에 이르러서야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의 벼슬을 거쳐 성균관전직, 사헌부감찰, 형조정랑 등을 역임하게 된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한 후(1609)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의 권력을 비판하는 「대개천설(大開川說)」을 지었고, 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옥사를 은유한 시 「형제암(兄弟岩)」을 지었다. 이후 56세(광해8년, 1616)에는 함경도 경성판관(鏡城判官)이라는 외직(外職)을 받아 변방 요새지로 부임하여, 5년 동안 이 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의 가사 <출새곡(出塞曲)>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61세(광해군13년, 1621)에 상경하여 제술관(製述官)이 되었

이재의 가사 작품은 총 5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관사(出關詞)>는 그 후기만 남아 있으며 현재 4편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이재영언(頤齋詠言)』에 <출새곡>, <속관동곡>, <자도사>, <매호별곡>이 수록되어 있고, 『간례(簡禮)』에는 <출새곡>을 제외한 세 편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이재 가사에 대한 연구는 고경식⁵⁾과 김영만⁶⁾이 선편을 잡은 이래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석수⁷⁾에 의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후 전체 작품에 대한 검토나 송강, 노계 가사와 비교·검토한 논의들이 제출되었고,⁸⁾ 개별 작품들에 대해 연구한 논의들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⁹⁾

으나, 당시 인목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서궁(西宮)의 황량함과 선왕을 생각하며 쓴 시(『직분사기소견(直分司記所見)』, 『제분사승지청벽(題分司承旨廳壁)』)을 백대형(白大新), 신의립(辛義立)과 이이첨 등이 보고 무고하여 시화(詩禍)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인조 반정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동부승지(同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제수 받았으나 얼마 있지 못해 사직하고, 경북 상주(尙州)의 매호(梅湖)에 은거하다가 65세(인조3년, 1628)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가사 <자도사(自悼詞)>는 시화를 입은 시기에 지어진 것이며, <속관동곡(續關東曲)>과 <매호별곡(梅湖別曲)>은 퇴사(退仕) 후 매호에 은거하는 동안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 5) 고경식, 『매호별곡과 자도사』, 『자유문학』49, 자유문학사, 1961. / 『조이재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63. / 『관서별곡과 출관사』, 『국어국문학』36, 국어국문학회, 1967. / 『정송강과 조이재의 관계』, 『국어국문학』64, 국어국문학회, 1974.
- 6)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10, 한국어문학회, 1963.
- 7)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논문집』20, 상주농잠전문대, 1981.
- 8) 김대권,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조병삼, 『사미인곡과 자도사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태형, 『이재 가사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구영완, 『정송강과 조이재 가사문학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역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근의 연구로는 김봉선(『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폭넓은 자료 활용을 통해 조우인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작품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 9) 노규호, 『이재 조우인의 <출새곡> 연구』,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김기형, 『이재 조우인의 <속관동별곡> 연구』, 『어문연구』제30집, 어문연구학회, 1997. /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제5집, 온지학회, 1999.

이재 가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재의 가사가 기봉이나 송강가사의 영향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모방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변화 추구하고 창의성이 보이는 바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우수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봉과 송강 작품의 아류작 내지는 모작(模作)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문학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의 평가들이다.

가) 頤齋의 歌辭는 松江을 模倣한 面이 많기는 하나, 그 模倣은 單純한 模倣이 아니라 松江의 歌辭를 充分히 吟味하고 完全히 消化하여 自己의 作品世界에 渾然히 融合하여, 歌辭作家로서 그는 그대로의 一家를 이루고 있다. … 松江에는 못 미칠지 모르나 朴蘆溪와는 相距가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⁰⁾

나) 정철의 전례를 흉모해서, <성산별곡>을 <매호별곡>으로, <사미인곡>을 <자도사>로, <관동별곡>을 <속관동별곡>으로 잇고자 했다. 그런데 본든 작품은 으레 그렇듯이 표현의 묘미를 다시 살리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졌다.¹¹⁾

다) 出塞曲을 중심으로 한 이재의 가사가 剗製化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전대의 작품을 뛰어넘는 創造性的의 부족에서 오는 예술적 陳腐性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위 예문은 이재 가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 중 대표적인 논의들을 간추려 인용한 것이다. 이 중 가)는 긍정적 평가에 해당하고 나)와 다)는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초기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재 가사에 대

10) 김영만, 앞의 논문, 1963, 81~82쪽.

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3판), 지식산업사, 1994, 339쪽.

12) 노규호, 앞의 논문, 1996, 215쪽.

해 나름대로의 가치와 성과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겠으나, “松江의 歌辭를 充分히 吟味하고 完全히 消化하여 自己의 作品世界에 渾然히 融合하여, 歌辭作家로서 그는 그대로의 一家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어에서 볼 수 있듯이, 다분히 피상적 관찰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또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전대 작품의 모방’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석수의 경우 “이재가사를 송강가사의 模作이라든가 亞流라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속관동곡>을 “관동속별곡은 송강의 관동별곡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平凡한 기행가사로 頤齋歌辭 四篇 가운데 가장 가치가 떨어진다”¹³⁾고 평가하는 모순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 내에서도 상호 모순된 시각이 보이는 것은 뚜렷한 근거없이 우수성을 주장한 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송강가사와의 비교를 통해 내려진 평가들인데, <속관동곡>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강의 <관동별곡>을 ‘이어서[續]’ 지었다는 점과 송강가사와 유사한 표현구가 많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의 평가는 초기 연구에서 도출된 맹목성을 벗어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 시기 작품들과의 비교에만 치중되어 이재가사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단순히 어휘 사용과 서술 구성방식의 유사성만을 놓고 이재의 가사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송강의 가사도 기봉의 <관서별곡>을 모방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강의 가사마저도 “前期 諸作品을 模倣한 흔적이 짙고, 依樣奪胎한 느낌마저 강하게 풍겨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¹⁴⁾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다른 어떤 가사 작품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시기의 작품을 전범(典範)으로 삼아 자신의 작품을

13) 한석수, 앞의 논문, 1981, 202~206쪽.

14)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150쪽.

형상화하는 방식[용사(用事)]은 비단 가사에만 국한되지 않은 당대 여러 문학 장르들의 창작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시기의 작품들을 전범으로 삼되 이를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켰는가에 대해 평가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서구문예학적 관점에서 단순 모방으로 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모방과 초월’이라는 두 수준의 평가를 넘어서 그의 가사 문학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재 조우인의 가사 문학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당대 이재가 생각했던 가사 장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는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창작동기와 과정 등을 서문과 후기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 그가 가졌던 가사 장르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이재의 가사 장르 인식 재조명

이재는 가사 창작과 관련된 배경과 과정을 서문인 「속관동곡서(續關東曲序)」와 후기인 「제출새곡후(題出塞曲後)」, 「제출관사후(題出關詞後)」를 통해 남기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창작배경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이재가 가졌던 가사 장르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우연히 정송강의 <관동별곡>을 얻어 보니 비단 가사의 운치(韻致)는 준일(俊逸)하고 절주(節奏)는 구르는 듯하고 맑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진 수천백 구가 감분격앙(感憤激昂)의 회포를 모두 쏟아냈으니 진실로 걸작이다. 반복하여 음영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러움을 자아내도록 하였다. … 이에 지난날의 발과 눈이 노정(老正)한 것들을 기억하여 잠가 1편을 지어 <속관동곡>이라 하였다. 송강의 가사에서 상세히 이른 곳에 대해서는 때때로 써넣지 않았으니 … 가사를 완성하여 스스로 한번 읽어보니 비록 송강 가사

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나, 때로 한가한 곳에 거하면서 홀로 박자에 맞추어[擊節] 소리높여 읊은 즉, 반드시 답답함과 번민함을 밀쳐내고 정신을 발하여 펴는데 도움이 되었다. 백천동의 그윽함과 비로봉의 높음과 구룡폭포의 기이함과 같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송강이 가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과장된 말로 놀리웠으니, 송강이 안다면 어찌 크게 웃으며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속관동곡서(續關東曲序)」¹⁵⁾

이재가 송강이나 기봉의 가사를 전범(典範)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기술한 창작배경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예문은 <속관동곡>의 서문으로, 송강의 <관동별곡>에 대한 이재의 평가와 <속관동곡>을 창작하게 된 경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속관동곡>은 이재가 말년에 매호에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이는 이 작품이 지난날의 기억, 즉 관동지방을 유람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이후에 지었다고 밝힌 점과 서문 마지막에 ‘매호수제(梅湖叟題)’라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서문에서 이재는 송강의 <관동별곡>을 ‘걸작’이라고 격찬하며 이를 본받아 ‘이어서[續]’ 이 작품을 짓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재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송강의 아류작임을 밝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서문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송강의 노정(路程)이 닿지 않았던 곳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송강의 가사와는 변별성을 두려 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실제 작품상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재는 ‘송강이 안다면 부러워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작품이 ‘속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인 동시에 자기 나

15) 「속관동곡서」, 『이재집』 권2.

… 偶得鄭松江關東別曲而觀之 非但詞致俊逸 節奏圓亮而已 纒纒數千百言 寫盡感憤激昂之懷 眞傑作也 反覆吟詠 益令人歎艷之無已也 … 仍記往日足目之所經過者 作長歌一篇而名之曰續關東曲 其問鄭詞之所詳道者 則往往刪而不入 … 詞成自着一過 雖不逮鄭詞之萬一 有時居閑處 獨擊節高詠 則未必不爲遣鬱排悶 發舒精神之一助也 至如百川之幽 毗盧之高 九龍之奇 皆松江之所未到 故問爲夸詞以壓之 松江有知 豈不爲之發榮而歆羨耶.

름대로의 자부심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재가 사용한 ‘속(續)’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전편을 ‘잇거나’ ‘계승’하였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재는 송강이 미처 서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갖추어 서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는 송강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전편인 <관동별곡>을 보충하고 더불어 또 다른 의경(意境)을 추구하는 ‘속편’을 자처했던 것이다. 가사 장르의 서술 특성이 ‘역거(歷擧)’, ‘설진(說盡)’, ‘비술(備述)’¹⁶⁾, 즉 자취가 드러나도록 역력히 들거나, 곡진하게 서술하거나, 갖추어 빠짐없이 진술하는데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서문에서 보이는 이재의 진술은, 이재가 가사 문학의 장르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장르 인식을 토대로 작품 창작에 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재의 가사 문학에 대한 장르 인식은 그가 비교적 젊은 시기에 창작했던 <출관사(出關詞)>의 후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세속에서 <관서별곡>이라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선가자들이 진승하여 암송하고 부르는데, 가사는 호탕하고 그 용의(用意)는 뛰어나니 가히 그 사람됨을 생각해 알 수 있다. / 병오년(丙午年)에 내가 공사(公事)로 용만(龍灣)에 갔다왔는데 ... (<관서별곡>을) 이어 <출관사> 1편을 지었으니 거의 수백 구가 되었다. 대저 어의(語義)가 기봉의 가사에 넘나드나 그것에 상반되는 것 또한 많다. ... 애석하게도 평양은 단군과 기자의 옛 도읍이요 살수는 수나라 병사를 깨뜨린 곳이며 김효녀의 단지(斷指)와 이철주의 의로운 죽음이 있는 곳인데, 기봉의 가사를 살펴보면 모두 언급하지 않았고, 중언부언한 것은 단지 화류장(花柳場)의 방탕한 가사들이었다. 그의 가사를 보고 뜻을 음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왕왕 혹은 명교(名敎) 중에 언급하기를 부

16) 이는 심수경의 『견한잡록(遣閑雜錄)』과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서 가사의 평어(評語)로 사용한 용어들이다. 이외에 ‘포서(鋪敘)’, ‘성론(盛論)’, ‘비록(備錄)’ 등의 용어를 들 수 있는데, 김학성은 이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역거’를 선택하여 가사의 진술 특성의 하나인 ‘역거의 원리’라 제시한 바 있다.(김학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199쪽.)

끼러워할 것이다. 만약 옛날의 시를 채집하던 사람이 본다면, 그의 선택이 이것일지 저것일지 모르겠다.

—「제출관사후(題出關詞後)」¹⁷⁾

<출관사>는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 없지만, 그 후기가 전하고 있어, 그 내용이 관서지방에 관한 가사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출관사>는 병오년(丙午年, 1606), 즉 이재의 나이 46세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면 그의 가사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여기서 이재는 기봉의 가사를 호탕하고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기 작품의 어의(語意)가 기봉의 <관서별곡>에 기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것 또한 많다”는 것과 후기 말미에 “만약 옛날의 시를 채집하던 사람이 본다면, 그의 선택이 이것일지 저것일지 모르겠다”는 서술을 통해 단순히 전범(典範)을 따르고 있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은 것 또한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후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봉의 가사 내용을 비판한 부분이다. 이재는 기봉의 <관서별곡>에 대해, “증언부연한 것은 단지 화류장의 방탕한 가사들”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기봉의 가사가 관서지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풍류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재의 평가는 역사적 사실성에 기반을 둔 구체적 서술, 사실에 대한 조목화(條目化) 등 자신이 가졌던 가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재가 가졌던 가사 문학에 대한 장르 인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는 전범에 이은 속편의 창작을 통해 새로운 의경을 추구하려

17) 「제출관사후」, 『이재집』 권2.

…世所謂關西別曲者是也 至今善謳者 傳誦而歌之 詞致豪邁 用意飄逸 可以想見其爲人 丙午夏 余以公幹 往返龍灣 … 續作出關詞一篇 無慮數百言 大抵 語意出入白詞而 反之者亦多 … 所惜 平壤乃檀箕舊都 滹水是隋兵敗處 金孝女之斷指 李鐵州之死義 究諸白詞 皆不及焉 而重言複語 只在花柳場蕩逸之詞而已 則觀其詞而 味其意者 往往或蓋稱於名教中 若使古之採詩者而見之 則其取舍予奪 未知在此乎在彼乎.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의양탈태(依樣奪胎)'한 것이 아니라 보다 상세하고 전편(前篇)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작품 서술의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바탕을 둔 작품 서술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사 문학의 서술 방식에서 그 대상의 서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이러한 가사 장르 인식은 전단계의 가사 문학과는 변별되는 징후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기의 작품이 다다르지 못한 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사 작품이 지향해야 할 바를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가졌던 일관된 장르 인식으로 판단된다.

이재의 가사 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봉이나 송강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모방과 초월'의 수준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해야 하는 것은, 전범을 본받고 비슷한 소재와 대상을 갖고 창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당대에는 가치있는 문학행위였다는 점이다.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관동별곡서(關東別曲序)」¹⁸⁾에서 이재의 <속관동곡>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를 칭찬하였고 김득신 자신 또한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대인들이 송강의 <관동별곡>을 향유하면서도 이를 '이은' 이재의 <속관동곡> 또한 다른 미감으로 받아들이고 향유했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재 가사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당대의 문학행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재가 전대의 가사를 계승하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이전 시기의 사대부 가사 작가들과는 또 다른 면모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18) 김득신, 「관동별곡서」, 『백곡집(柏谷集)』 권5.

… 曹友仁聽關東別曲 不制飄然遺世之興 遂往遊關東 作續關東別曲 見者稱之 昔李澤堂謂余曰 嶺南文章曹友仁第一以此揆之 續別曲必奇而不得見 未知與松江所作別曲何如也.

3. 이재 가사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

1) 관북(關北)의 풍토성에 기인한 인정(人情)의 형상화 — <출새곡>

<출새곡>은 현재 남아있는 이재의 가사 작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즉 병진년(丙辰年, 1616), 그가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부임시작은 작품으로, 창작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후기(『제출새곡후(題出塞曲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재는 경성으로 떠나기에 앞서 족형인 치재(恥齋) 정탁(鄭倬)을 만나는데, 전별하는 자리에서 치재는 백광홍과 정철의 가사가 관서와 관동에서 유명한데 북로(北路)에서는 들리는 바가 없으니, 자신을 위해서 관북(關北) 지방에 관한 장가(長歌) 1편을 지어오기를 부탁한다.¹⁹⁾ 다시 말해, 이재가 <출새곡>을 짓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치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서·관동별곡>을 모델로 한 기행가사 작품이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출새곡>은 관내를 돌면서 보고들은 풍치(風致)와 풍류(風流)를 표출하거나 목민관으로서의 호방함을 읊어낸 <관동별곡>류의 가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새곡>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된 정조는 변방으로 부임해 가는 자신의 처지를 ‘적객(謫客)’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한탄과 처량한 정서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北方 二十餘州북방 이십여주에 鏡城경성이 門戶문회러니 / 治兵 牧民치병
목민을 낚을 맞겨 보내시니 / 罔極망극호 聖恩성은을 감플 일이 어려웨라 /
書生 事業서생 스업은 翰墨한묵인가 너기더니 / 白首 臨邊백수 님변이 진실

19) 『제출새곡후』, 『이재집』 권2.

丙辰秋 叨承鏡城之命 臨行 拜恥齋兄之私第 公乃酌之酒而與之餞 曰白詞則鳴於關西 鄭詞則播於關東 而之於北路 則槩無聞焉 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 豈可以一二數而猶然者 茲非風流場之一欠事歟 子其爲我 極意構思 製爲一長歌而來 以慰老兄孤寂之懷可也 …”

노 意外의외로다 / … / 禁闕금달을 외오 두고 謫客적객은 무슨 죄고 / 巖
 岩 鐵嶺철암 절령을 험튼 말 전혀 마오 / 世道세도를 보거든 平地평지가 너
 기노라 / … / 安邊 迤北안변 이북은 저 즘씩 胡地호디러니 / 迅掃 腥膻신소
 성전호야 關國 千里벽국 천리하니 / 尹壘 宗瑞윤관 종서의 豐功 偉烈풍공
 위렬을 / 草木초목이 다 아나다 / … / 威關嶺함관령 저문 날의 물은 어이
 병이 듣고 / 滿面 風沙만면 풍사의 갈 길히 머러세라 / … / 大門嶺대문령
 너머 드러 靑海鎮청희전에 드리오니 / 一道 喉舌일도 후설이요 南北 斐衝남
 북 요툼이라 / 信臣 精卒신신 정졸로 利兵니병을 배퍼시며 / 強弓 勁弩강궁
 경노로 要害노해롤 디키는 듯 / 百年 升平백년 승평에 民不 知兵민불 지병
 하니 / 重門 待暴등문 더포로 닐너 모습 흐리오 / … / 城津 設鎮성진 설진
 이 形勢형세는 도커니와 / 亂後 邊民난후 변민의 膏血고혈이 몰나시니 / 廟
 堂 肉食묘당 육식은 아는가 모르는가

—〈출새곡〉(『이재영언』)

<출새곡>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중앙 정계(政界)에서 밀려난 이재의
 좌절로 인해 비애와 한탄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 예문은
 <출새곡> 서·본사의 몇 부분을 옮겨온 것인데, 특히 전반부에는 경성판
 관으로 명을 받았을 때의 이재의 심사(心思)와 부임지로 가는 여정의 상
 황이 잘 드러나 있다. 변방 외직(外職)인 경성판관으로의 부임은 좌천(左
 遷)과도 같은 탐탁지 않은 부임이지만 왕명에 의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신하로서의 도리는 당연히 그 명을 받드는 것이다. 하지만 5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변방의 치병·목민관으로 부임하라는 명은 그 자신에게도
 ‘진실로 의외’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의 처지에서 보자면 ‘가파른 철령’
 도 ‘세도(世道)’에 비하면 ‘평지(平地)’로 느꼈을 것이며, 부임지로 가는 그
 의 여정은 ‘적객(謫客)’으로서의 암울한 노정이며, ‘말은 병이 들고’ ‘모래
 바람이 사방에서 거칠게 몰아치는’ 힘들고 기나긴 여정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와는 또 다른 정조를 작품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데, 바로 변방 요충지에서의 왕정 수행에 대한 의욕적 정서를 표출한 것

이 그것이다. 위 예문을 보면, 임금에 대한 칭송과 변방 목민·치병관으로서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앙정계에 대한 강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출새곡>의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기존 논의에서는 이를 ‘상이한 감정(왕정수행의 의욕/정치적 좌절)의 복합적 표출’²⁰⁾로 보기도 하였고, ‘보수적 관료관의 타성적 표현’²¹⁾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반된 정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일까. 이는 이재가 경성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경위가 유배와 같은 좌천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재가 경성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광해 5년(1613)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옥사(獄事)가 있자 분개하여 <형제암(兄弟岩)>이란 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광해군의 잘못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 인해 유배나 다름없는 외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시와 경성판관 부임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²²⁾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재가 경성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원인은 당시 대북파가 실세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재가 광해군 즉위 초부터 대북파에 대해 비판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정치적인 요인이 어떻게든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그러나 이재는 경성판관(종5품)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종6품 이하의 미관말직(微官末職)이나 외직을 전전했다는 점²⁴⁾에서, 경성판관으로 부임이 반드시 유배와 같은 좌천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이재의 경성판관 부임은 대북파의 득세로 인해 중앙의 주요 관직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다시 외직으로 나간 정도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20) 최규수, 앞의 논문, 1999, 25~27쪽.

21) 노규호, 앞의 논문, 1996, 207~209쪽.

22) 김봉선, 앞의 논문, 2003, 41~42쪽.

23) 이식, 『묘지명』, 『택당집』 별집 권2. (鄭仁弘勢傾朝野 而公每斥之以大姦 嘗作大開川說 以譏貶其黨)

24) 이재는 45세(1605, 선조38)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후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정9품)·저작(著作, 정8품), 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 종7품)을 거쳐, 50세인 1610년(광해군2)에는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정7품), 경성판관 부임 3년 전인 53세(1613, 광해군5)에는 외직인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 종6품)으로 있었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출새곡> 전반에 흐르는 한탄의 정조를 이끌어 왔던 주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좌절로 인한 이재의 한탄과 비애감이 <출새곡>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작품 곳곳에서 왕정 수행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출새곡>을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처량한 정조(情調)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에 대한 이재의 의도를 <출새곡>의 후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한 달 남짓의 날을 쉬지 않고 가, 마침내 경성에 도착하니 경도(京都)와의 거리가 거의 이천여 리였다. 길은 사령(四嶺)을 넘고 육진(六鎭)의 끝에 이르는데, 풍경(風景)이 서남지역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옥저 이북은 해안가의 한 길이 매우 기구하고 험상하였는데, 길을 따라가며 보이는 풍경이 가히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근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목(耳目)이 미친 곳들을 주워 모아 長歌 1편을 지었으니 <출새곡>이라 하였다. 노래가 무릇 백여 구인데 가사의 뜻이 슬프고 서늘하고 처량하고 한스러워 마치 자유로이 소요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듯하다. 대개 절새(絶塞)에 몸을 등에 인점(人情)이 반드시 그리되는 것이리라. ... 비록 나의 이 가사를 관현에 입히고자 하나 소용될 곳이 없는 까닭에 가사가 완성됨에 문득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가 훗날이 되었을 때에 잠깐씩 스스로 펼쳐 보아서 그윽한 근심을 달래는 것이 좋으리라.

—「제출새곡후」25)

25) 「제출새곡후」, 『이재집』 권2.

... 行行過月餘日 始達于鏡 鏡之距京都 幾二千餘里 路踰四嶺 至窮六鎭 風氣景象 絕不與西南相伴 而沃沮以北 則濱海一路 崎嶇險澁 甚矣 沿途物色之可以娛心日者 絕無而僅有 故掇拾耳目之所及者而製爲長歌一篇 名之曰出塞曲 歌凡百十餘言 而詞意悲涼淒惋 似若有以自曠而不能者 蓋以投身絕塞 在人情所必至也 ... 雖欲被此詞於管絃 無所用諸 故詞成 輒藏之篋笥中 他日歸來 稍自展觀 以帳幽情之爲好也.

「제출새곡후」를 보면, <출새곡>의 전반부는 부임지로 가는 여정에서 느낀 이재의 심사를 그대로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성으로 가는 길은 경도(京都)와의 거리가 거의 이천여 리가 될 정도로 멀고도 험준한 여정이었으며, 그의 심사에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음’ 정도로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의 뜻이 ‘슬프고 처량하고 한스러운’ 것은 절새(絶塞)에 몸을 둔 사람의 마음[人情]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는 <출새곡>의 정조가 관북지역에서 보고 느낀 이재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 요컨대, 이 작품의 주된 정조는 정치적으로 좌절을 겪은 정객(政客)의 한탄이 아니라 관북지역의 척박한 풍토성에서 감흥되어 나온 처량하고 서글픈 정서이며, 이를 문학적으로 곡진하게 서술·형상화한 것이 바로 <출새곡>인 것이다.

<출새곡>에 대해, 기존의 기행가사들과 비교하여 자연완상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이러한 까닭은 앞서 후기에서 살펴봤듯이, 관북지역의 자연풍광에 대한 감흥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들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척박한 풍토성은 작품의 우울한 정서와 상황을 일관되게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소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풍광과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출새곡>의 중반부에서는 경성으로 부임하면서 본 주변 풍광에 대한 묘사나 요충지로서의 위세를 부분적으로 읊어내기도 한다. 낙민루(樂民樓)에 올라 과거 옥저(沃沮) 산하를 바라보며 가기(佳氣)를 느끼는가 하면, 고려의 명장 윤관(尹瓘)과 조선의 김종서(金宗瑞)가 개척했던 육진(六鎭) 지역을 둘러보며 감흥에 젖기도 한다. 이재의 이러한 자연완상에 대한 서술 방식은 역사적·지역적 사실에 맞는 구체적 서술이라는 점에서 전단계의 가사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자연완상의 서술은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그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이내 사라지고 기녀와의 풍류와 심정 묘사 위주의 서술로 전환된다.

26) 최규수, 앞의 논문, 1999, 28~29쪽 참조.

東山 携妓동산 휴기하고 北海 鑿북해준을 거홀우라 / 烟花 三月연화 삼월의 元帥 臺원슈대에 올라 가니 / 春風 駘蕩춘풍 이당하야 淑景 淑경을 부쳐 내니 / … / 韶華 韶화도 그디 업고 風景 風景이 無盡 無盡하니 / 一春 行樂일춘 흥낙이 슬피염즉 하다마는 / 鄉關 향관을 바라 보니 五嶺 五령이 그려 잇고 / 異地 山川이디 산천은 六鎮 六진이 거의로다 / 明時 諫官 明시 諫官명시 덕관이 到處 到處의 君恩 君은이로다 / 遠臣 遠臣 金殿 金殿원신 금연을 뉘 아니 슬허하며 / 重入 修門 重入 修門을 어이하여 괴필홀고 / … / 이 잔 末 末 부어 이 시름 닛다 하니 / 東溟 東溟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홀고 / 漁父 漁父이 말듯고 낙대를 들너 매고 / 비썬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 世事 世事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 百事 百事 生涯 生涯 生애는 一竿 一竿일간둑 뿐이로다 / 白鷗 白鷗이구는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하느다

—〈출새곡〉

위 인용한 부분은 <출새곡>의 후반부로, 기녀와 풍류관을 벌이며 춘흥을 즐기다가 ‘향관(鄉關)’과 ‘군은(君恩)’을 생각하며 다시 우수에 젖어드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논자에 따라서는 “집권층이 젖어들기 쉬운 패배자적 風流意識”과 “전단계에서 보여 주었던 批判的 現實觀과는 전혀 동떨어진…의식의 二重性”이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한다.²⁷⁾ 그러나 이제는 <출새곡>에서 보여준 한탄의 면모와는 다르게, 한시(漢詩)를 통해서도 변방의 치병·목민관으로서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가 하면²⁸⁾, 실제로도 경성을 개축에 공을 들여 이후에 종5품 경성판관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진하게 될 정도로 경성판관으로서의 왕정수행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²⁹⁾ 다시 말해, <출새곡>은 관북지역의 풍토성에 맞는 심정과 상황을 일관되게 드러내며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

27) 노규호, 앞의 논문, 1996, 211~212쪽 참조.

28) <偶吟塞下事>, 『이재집』 권1.

“돌아가는 길에 말안장 없고 오랑캐의 머리를 매달고 싶으니, 누린내 나는 곳을 쓸어버리려면 하루라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네.(歸鞍定欲懸胡首 迅掃膻區不日空) … 서리진 말발굽에 선혈이 남아있으니, 지난 밤에 벌판에서 오랑캐의 내장을 밟았으리라.(認得霜蹄鮮血在 沙場前夜履胡腸)”

29) 이석, 『묘지명』, 『택당집』 별집 권6. 久之因事罷歸 用改築鏡城之勞 嘗階通政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새곡>에서 적극적인 현실 개척의 의지를 찾으려 한다든가 타성적 관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문예적 텍스트에 대해 목적론적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처럼 <출새곡>에는 한탄과 서글픔의 정조가 작품 전반에 걸쳐 흐르긴 하지만, 시상이 여기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만약 이에 그쳤다면 <출새곡>은 ‘패배자적 풍류의식’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을 수도 있다. 이재는 <출새곡>의 마지막 부분을,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詞)> 형식을 빌려 ‘어부’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世事세사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白鷗백구는 나와 버디라 오명가명 흐는다”는 발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만한 타개책을 스스로 제시하고 모색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전개된 출새(出塞)에 대한 정서와는 또 다른 인정(人情)의 문학적 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퇴사(退仕) 후 탈속(脫俗)의 의식 지향 — <속관동곡>

<속관동곡>은 <매호별곡>과 더불어 이재가 퇴사 후 매호에 은거하던 시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재는 경성판관의 직무를 마친 후인 61세(광해군13, 1621)가 되던 해에 상경하여 제술관(製述官)이 되었으나, 당시 인목 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서궁(西宮)의 황량함과 선왕(선조)을 생각하며 쓴 시(「직분사기소견(直分司記所見)」, 「제분사승지청벽(題分司承旨聽壁)」)로 인해 대북과로부터 모함을 받아 시화(詩禍)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옥고(獄苦)를 치르게 되고,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는 승지의 벼슬을 제수받게 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직하고, 경북 상주(尙州)의 매호(梅湖)에 은거하게 된다. <속관동곡>은 바로 이 시기(1623~1625)에 창작된 작품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송강의 <관동별곡>과의 비교를 통해 이재가 추구했던 <속관동곡>의 ‘속편’적 성격과 만년(晩年)에 그가 가졌던 탈속적 세계의 의식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속관동곡>은 작품의 서문(『속관동곡서』)이 남아있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서문에 따르면 <속관동곡>은 과거 이재가 관동지방을 유람했던 기억을 되살려 이후에 지은 작품이다.³⁰⁾

四仙스선의 노던 싸흠 關東관동이 크라 호디 / 塵埃 半生뎨애 반심애 歲月세월이 거의러니 / 物外 烟霞물의 연하에 遠興원흥이 비와나니 / 尋眞行
李심진 힝니는 전나꿋 썩이로다 / … / 武安寺무안스 디나 올라 乘鶴승학
교 건너 드러 / 塵寰단환이 점점 머러 仙境선경이 갓잡던가 / … / 山靈산령
도 有情유정홀샤 날 을 줄 어이 아라 / 一雙 靑鶴일쌍 청학을 마조 내야 보
낸 마리 / 荷衣하의를 떨티고 半空반공애 올라 소사 타고 / 長安寺 萬瀑洞
당양스 만폭동을 눈 아래 구버 보고 / 紫煙즈연을 헤티고 百川洞백천동 츠
자 드니 / … / 人寔인환을 ㄱ리마가 世界세계를 여러시니 / 壺中 天地호둥
 턴디와 栗裏 乾坤울니 건곤이 어디 또 인는가 이 짜히 그 아난가

—<속관동곡>(『이재영언』)

위 예문은 <속관동곡>의 전반부로, 선계지향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는 작품 첫머리에서 관동지방을 ‘사선(四仙)’이 거처한 선계로 인식하고, 자연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과정을 선계와 가까워져 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작품의 내적 흐름은 ‘속세(俗世)→선계(仙界)’로, 즉 금강산 유람의 과정을 현재 자신이 속한 속세를 탈피하여 선계인 금강산을 찾아가 등정하는 노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이 퇴사의 시기에 지어진 만큼 세속을 초월한 선계지향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속관동곡>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청학을 타고 관동지방을 유람하는 장면을 기술한 부분이다. 이재는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송강의 가사에서 상세히 이른 곳은 때때로 산삭(刪削)하여 써넣지 않았다”³¹⁾고 하였

30) 『속관동곡서』, 『이재집』 권2. … 仍記往日足日之所經過者 作長歌一篇而名之曰續關東曲 ….

는데, 이러한 부분을 산령(山靈)이 보낸 청학을 타고 유람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송강의 <관동별곡>과 중복되는 부분을 간략화 하는 동시에 자신이 선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재의 의도적이고도 탁월한 서술기법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재의 가사 창작이 전편을 보완하거나 갖추어 서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 이재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속관동곡>이 <관동별곡>과 변별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작가 자신으로 상정되는 작품 내적 서술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관동별곡>에서 “關東관동 八百里 팔백니에 方面방면을 맞디시니”라고 하여 관찰사로서의 소임을 부여받은 존재인 반면에, <속관동곡>에서는 속세에서 이미 반평생을 보냈고 행장도 ‘다리 저는 나귀’만을 끌고 들어가는 탈속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차이는 작품 내용의 전개와 자연 완상의 의미지향에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송강이 몰아일체의 경지를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처한 현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재는 자연경물을 선계로 인식하여 탐승하고 그 세계에 몰입하여 탈속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작품의 문학적 형상화와 작품기술의 초점화 방향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 또한 ‘속편’으로서의 변별성을 추구하고자 한 이재의 가사 장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속관동곡>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毘盧峯)에 등극 장면이라 할 수 있다.

毘盧 最高頂비로 최고봉에 머리롤 들어 보니 / 爛銀 濃玉난은 농옥을 누려서 사겨 내야 / 乾端건단을 노피 괴와 地軸디축에 고잔논고 / 올라 보랴 흐면
一蹴일축에 期必기필할가 / 흔 거름 올미고 또 흔 거름 다시 올며 / 從容 漸進종용 점진흐야 絶頂절정에 올라가니 / 茫茫八紘망망 팔평을 더편느니 하느
리오 / 日月 星辰일월 성신은 頭上두상에 버러시니 / 二儀 淸濁이의 청탁과

31) 『속관동곡서』, 『이재집』 권2. … 其間覽詞之所詳道者 則往往刪而不入 盖以物色之分留者不多故也 …

萬品 生成만품 싱성이 / 昭蘇 森列소소 습닐흐야 眼底안데에 드리오니 / 어디
또 오르며 볼 거시 무엇고 / 所見소견이 이만흐면 快活쾌활타 흐리рода / 松
江 浪客송강 낭객은 마초아 드리오디 / 仙分선분이 업돏던가 道骨도골이 안
이런가 / 立脚립각이 굿디 아나 半途반도의 폐똥던가 / 어디 뉘 금관디 못 올
라 보고 난고

—<속관동곡>

위 예문은 <속관동곡>의 비로봉을 오르는 부분을 옮긴 것으로, 비로봉에서 느낀 감회와 심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만물의 다시 소생하는 듯한 비로봉 주변의 풍광과 여기에서 환기된 마음의 감흥(二儀 濤濁이의 청탁과 萬品 生成만품 싱성이 / 昭蘇 森列소소 습닐흐야 眼底안데에 드리오니)은 세사(世事)에서 벗어나 자연에 몰입하고자 하는 이재의 작가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오를 데가 없고 볼 것이 없다’는 이재의 언술은 작가 이재가 도달하고자 한 궁극적인 탈속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재가 전범으로 삼은 <관동별곡>의 작가 송강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송강(松江) 낭객(浪客)’이라는 직접적 표현기법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관동별곡>에서 송강은 비로봉 정상 앞에서 등정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데,³²⁾ “어와 더 디워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실과 부딪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송강의 고민과 갈등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는 “仙分선분이 업돏던가 道骨도골이 안이런가”라고 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우월감’은 단순히 송강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세속적인 우월감이 아니다. <출새곡>에서만 하더라도 이재 역시 자신이 처한

32) “毗盧峰(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냐 놉똥던고 / 魯國노국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넘거나 넘어 天下던하 었찌흐야 적닷말고 / 어와 더 디워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관동별곡>, 이선본 『송강가사』)

현실을 ‘시운(時運)’과 ‘명도(命途)’로 돌리고 원만한 타개책을 모색하던 처지였다. 그러나 이후 혼란한 정계에서 사회를 당하고 고초를 겪은 이제는 퇴사 후 매호에 은거하며 삶의 태도가 탈속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마지막까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던 송강의 처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송강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작품 속에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서술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상상 속에서나마 비로봉 정상에서, 쓸쓸히 돌아가는 송강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어디 뉘 금관디 못 올라 보고 난고”라고 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虞淵우연의 허 디고 銀闕은귀이 소사을 제 / 瓊盃 沆瀣경비 항허물 브어
 잡고 기돌우니 / 姮娥 素影항아 소영이 羲底잔져에 흘러느려 / 桂殿 仙語계
 전 선어를 날드려 흐요디 / 人間 煩惱인간 번뇌에 네 스실 니젓는가 / 玉皇
 香案옥황 향안의 노니던 그더러니 / 瑤壇요단을 비우고 下界하계에 보낸 뜻
 은 / 丁寧 帝眷정녕 제권이 곳 무심 홀가마는 / 世路세로 엇더관디 流落누
 락호여 든니는다 / 그 잔 다 먹고 또 혼 잔 2독 브어 / 三生 煙火삼생 연
 화를 다 시서 버린 후에 / 早晚조만에 玉樓옥누 고쳐든 다시 올라 오느라

위 예문은 <속관동곡>의 결사 부분으로, 이재 자신은 본래 선계의 사람인데 잠시 하계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송강이 꿈의 액자형식을 통하여 자신을 선화(仙化)고 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형식을 빌리지 않고 현실 속에서 선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³⁾ 이 부분에 대해서 논자에 따라서는 ‘현실세계로의 귀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옥루고쳐’라는 표현을 통해 작품의 지향점이 정계에의 복귀에 있음을 직접 말해줌과 동시에, 임금이 있는 곳인 ‘옥루’를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이 작품의 이상적인 공간은 현실적인 정치 세계로 환유되고”³⁴⁾ 있다고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선계의 향아(姮娥)가 이재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으로,

33) 김기형, 앞의 논문, 1997, 56쪽 참조.

34) 최규수, 앞의 논문, 1999, 37쪽.

여기서의 ‘옥누’란 임금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선계의 궁극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가 이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시화로 인해 옥고를 거친 후, 인조가 내린 벼슬을 마다하고 매호에 은거하던 때이며, 이 작품에서 강한 선계지향 의식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재의 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향아의 언술은, 당시 이재의 심경을 서술한 것으로 ‘세로(世路)’에 찌든 자신이 ‘삼생연화(三生煙火)’를 모두 잊고 은거하고자 하는 의식 지향을 간접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속관동곡>은 퇴사 후 강호에 은거하면서 탈속하여 초월적 세계로 귀의하고자 하는 이재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재는 송강의 <관동별곡>에 탄복하여 이를 전범으로 삼아 이 작품을 창작했지만, 송강의 추구한 현실복귀적 의경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뛰어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재의 <속관동곡>은 그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재 가사가 갖는 특징이며, 당대인들에게도 송강의 가사와는 또 다른 미감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16세기 말~17세기 초, 대표적인 가사 작가의 한 명인 이재 조우인의 가사 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 가사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양분되어 왔다. 하나는 송강과 기봉의 영향 속에 놓인 모방작이라는 평가와 다른 하나는 단순 모방이 아닌 나름대로의 변화 추구하고 창의성을 보이는 바 어느 정도의 수준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평가 시각은 이재 가사를 단순히 ‘모방과 초월’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였

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탈피하기 위해 본고는 이재의 작품 서문과 후기를 통해 그가 갖고 있었던 가사 문학에 대한 장르 인식을 재조명해 보았다. 첫째, 이재는 전범(典範)에 이은 속편의 창작으로 새로운 의경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존의 작품을 ‘잇거나’ ‘모방’했다기보다는 전편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하거나 보다 갖추어 서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둘째, 작품 내용 서술에 있어 구체적·역사적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바탕을 둔 작품 서술을 지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가사 작품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작품 서술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전 단계의 가사 문학과는 변별되는 징후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재는 전대의 가사 문학의 추구한 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의 작품 수용이 단순히 모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추구해야 할 바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작품 창작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출새곡>은 이재가 변방 외직인 경성판관으로 부임한 시절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재의 시기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그 좌절의 모습과 왕정수행의 의욕적 정서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재의 정치적 좌절과 서글픈 처지를 읊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관북지역의 척박한 풍토성에서 감흥되어 나온 작가 자신의 심사(人情)를 형상화한 것이며, 이를 관북의 지역적·역사적 사실과 아울러서 문학적으로 곡진하게 서술한 것이 바로 <출새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속관동곡>은 이재가 퇴사(退仕) 후 매호에 은거하던 시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송강의 <관동별곡>을 ‘이었다[續]’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 가치와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이재는 송강의 작품을 본받음과 동시에 ‘속편’으로서의 변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 전편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화하고 그 외 부분들은 상세히 서술하는 등 의도적인 서술기법으로 작품을 전개하였으며, 작품 서술자의 설정에 있어서도 송강과는 달리 탈속적 인물로 제시하고 작품의 초점화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 가 새로운 의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속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이재 가사가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재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재 가사만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가사 작품들과는 변별되는 17세기적 징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었다. 특히 이 17세기적 징후와 관련된 가사 문학의 변모 양상과 전범을 이은 '속편'의 창작이 당대에는 의미있는 문학행위로 받아들이고 향유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17세기 가사 문학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핵심어: 이재 가사, 출새곡, 속관동곡, 송강 가사, 장르 인식, 17세기적 징후

<참고문헌>

- 고경식, 「조이재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63.
- 구영완, 「정송강과 조이재 가사문학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기형, 「이재 조우인의 <속관동별곡> 연구」, 『어문연구』 제30집, 어문연구학회, 1997.
- 김대권, 「이재 조우인의 가사문학 연구」, 영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봉선, 「이재 조우인 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영만, 「조우인의 가사집 이재영언」, 『어문학』 10, 한국어문학회, 1963.

김학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노규호, 「이재 조우인의 '출새곡' 연구」,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박억만, 「이재 조우인 가사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최규수, 「〈출새곡〉과 〈숙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은지논총』제5집, 은지학회, 1999.

한석수, 「조우인의 가사연구」, 『논문집』20, 상주농잠전문대, 1981.

<Abstract>

Study on the Gasa(歌辭) Literature of Lee-Jae(□齋) Cho,
Woo-In(曹友仁)
— Focusing on the <Chulsaegok(出塞曲)> and
<Sokgwandonggok(續關東曲)>

Kang Keong-ho

This paper deals with the works of Lee-Jae Cho, Woo-In, who was a leading artists of Gasa Literature from the late 16th to early 17th centuries. Current assessment of Gasa exists in 2 divisions. One is that it is an imitated work within the influences of Song-gang(松江) and Gi-bong(岐峰) and the other is that it is not just simply imitation but rather a form of literature that can be recognized for a certain level of quality and value. However, these 2 views are somewhat problematic because they are founded with simple reliance on the dichotomy of 'imitation and transcendence'.

Through the preface and postscript of Lee-Jae's works, this study has re-highlighted Gasa's genre awareness. First, with a second volume following his main models, Lee-Jae sought new meaning. Second, the narration was based on detailed and historical facts. Third, Lee-Jae received existing Gasa Literature with criticism.

<Chulsaegok> was written during Lee-Jae's appointment as Gyeong-sung(鏡城)'s district justice. This work is a configuration of the artist's feelings and compassion regarding the poor conditions in Gwan-buk(關北). The <Sokgwandonggok> was created during Lee-Jae's retirement at Maeho(梅湖) in his later years. Song-gang's <Gwandongbyeolgok(關東別曲)> had been inherited. While seeking

Song-gang's works as a model, Lee-Jae at the same time sought differentiation as a sequel. Lee-Jae's Gasa was unique in that it reflected a 17th century element, different from those of prior works.

- Key Words : Lee-Jae's Gasa, Chulsaegok, Sokgwandonggok, Song-gang's Gasa, Genre Awareness, 17th century element